

4~5》길게읽기 – 자치회비 들여다보기



8》과일가게 '청춘 과수원' 사장 이상명군



2015학년도 후기 졸업사정대상자 예비졸업사정 시행 안내

① 대상자 : 2015학년도 후기(2016년 8월) 졸업 대상자

② 기간

가. 예비졸업사정기간 : 2016. 03.28(월) ~ 04.01(금)

나. 졸업대상자확인기간 : 2016. 04.04(월) ~ 04.06(수)

다. 예비졸업사정 최종결과 확인 : 2016. 04.11(월)부터



응용과학대학, 유럽항공우주국과 '천리안 2호' 개발 연구협약 체결

지난 21일 우리학교 응용과학대학 우주과학탐지체 연구실과 유럽항공우주국이 국제연구협약을 체결했다. 정부 주도 우주탐사사업에 대학교가 포함된 경우는 이번에 우리학교가 최초다. 사진은 개발중인 부품을 실험하고 있는 우리학교 천문대 지하 청정실 모습이다 (사진, 기사=양윤혁 기자)

신설 학과 캠퍼스 위치 두고 '갑론을박'

학생회, 캠퍼스 이원화 역행 '우려' … "귀가 막혔나" 부적절한 교무위원 발언 '눈살'

프라임 사업 준비위 최종 워크샵

이성민 기자 lsm1590@khu.ac.kr

프라임사업 사업계획서 제출을 열흘 앞둔 지난 21일 국제캠퍼스(국제캠) 중앙도서관 피스홀에서는 조인원 총장이 주재한 프라임사업 준비위원회 워크숍이 열렸다. 워크숍에는 부총장단, 미래정책원장, 서울/국제 준비위원회 위원, 학문단위 기획 TF를 비롯해 각 캠퍼스 학생대표도 참석했다.

워크숍에선 프라임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 보고가 있었다. 먼저 미래정책원 김충백(사회학) 부원장은 정원조정을 포함해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했다. 김 부원장은 학문단위 조정 계획에 대해 “보건·의료분야와 CK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과는 정원조정에 포함되지 않아, 정원 증감에 다소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학과별 정원 증감 기준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부분이 강조되는 기초학문 분야는 감소됐고, 문제해결에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으며 프라임사업의 수반사례가 될 수 있는 학과의 정원은 증가됐다”고 밝혔다.

라임사업의 방향이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 효과 역시 “바이오헬스, 미래과학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사회 진출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미래정책원 김충백(사회학) 부원장은 정원조정을 포함해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했다. 김 부원장은 학문단위 조정 계획에 대해 “보건·의료분야와 CK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과는 정원조정에 포함되지 않아, 정원 증감에 다소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학과별 정원 증감 기준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부분이 강조되는 기초학문 분야는 감소됐고, 문제해결에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으며 프라임사업의 수반사례가 될 수 있는 학과의 정원은 증가됐다”고 밝혔다.

공과대학 임성수(기계공학) 부학장은 신설될 단과대학을 보고하면서 미래과학 클러스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임 부학장은 “미래과학 클러스터는 다양한 미래지향적 주제를 갖고 산학협력과 대학원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며 “새로 신설될 단과대학은 이러한 연구와 산학 협력을 교육적인 부분에서 지원하는 곳”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신설될 단과대학이 “현재와 미래 사이의 현실적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프라임사업을 통해 개편이 예상되는 생명과학대학 백광희(생명공학원) 학장은 “바이오와 의료기술의 융합으로 신 의료기술이 등장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백 학장은 “2020년 정도가 되면 바이오 혁명이 도래할 것”이라면서 “현재 바이오 산업과 관련해 정책 지원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새로운 융합기술을 통해 상업적인 면에서도 변화가 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백 학장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트랙을 신설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계획 보고가 끝난 후에는 구성원간의 논의가 있었다. 전자정보대학 이수열(생체의공학) 학장은 새로 신설될 학과가 편제는 국제캠에 있으나 위치는 서울캠에 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3면으로 이어짐

타자의 얼굴

후마 - 대학주보 공동기획 인류문명을 만든 핵심개념 ⑪

이은정 후마니타스 칼리지 종학교과

타자(他者)란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 그는 먼저 자신과 구별되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척, 친구, 동료 등 나와 공유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을 가리킨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에 따르면 인간은 강력한 공격 본능을 지닌 동물이다. 동시에 집단적인 결속력을 갖추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동

물이다. 때문에 인간의 폭력적 성향이 분출되는 가장 손쉬운 대상이 바로 타자이다.

오늘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형



지그문트 프로이트에 따르면 인간은 강력한 공격 본능을 지닌 동물이다

성해준 근대 자유주의 사상은 한 인간을 ‘개인’으로 파악하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경제적인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개인은 자신의 신체와 생명, 재산에 대한 소유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개인의 자유란 소유물 획득을 위해서 나의 신체를 사용할 권리, 달리 말하면, 타자로부터 나의 소유물을 빼앗기지 않을 권리이다. 또한 개인과 개인의 관계는 합리적인 대화와 협상, 계약의 관계로 파악된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소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소유양식으로서의 실존만을

강조하고 있음을 뜻한다. 도시화 과정에서 탄생한 근대사회의 심리적 특징이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반감, 계산적 이성과 속내김주기라는 것은 이를 잘 드러내준다.

이런 현대사회에서 나와 아무런 혈통이나 친분, 이해도 공유하지 않는 타자는 수많은 사회적 관계 속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사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또는 정치철학의 아버지 토마스 휴스처럼 나의 소유물과 권리가 언제든지 침해할 수 있는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된다.

▶7면으로 이어짐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핀터레스트 <https://www.pinterest.com/daehakjubo/>▶유튜브 '대학주보'
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구글플러스 '경희대 대학주보'
<https://plus.google.com/u/0/108802383036836051070/posts>

전문가 칼럼

우리가 투표를 해야하는 이유

임형진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7면

